

SK, 화학 · 에너지 3조5000억원 투자

2007년 총 7조원 투자계획 ... 정밀화학 · 첨단소재 · 생명과학 확대

SK그룹은 2006년(6조원)보다 16.7% 늘어난 7조원 가량을 2007년 투자하고 73조원의 매출을 올리기로 사업 목표를 확정했다.

SK는 최근 계열사의 2007년 투자규모를 종합한 결과 2003년 투자액 3조5000억원과 비교할 때 4년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규모라고 밝혔다.

투자규모는 에너지 · 화학 분야가 3조5000억원, 정보통신을 포함한 기타 분야가 3조5000억원이다.

설비투자는 2006년 보다 6000억원 증가한 6조원으로 책정해 주로 에너지 분야의 설비 고도화,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해외자원 개발 확대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.

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해 1조원은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. 조 단위 연구개발 투자는 처음으로 차세대 융합 · 복합 통신 서비스 개발, 정밀화학, 첨단소재 개발 확대, 생명과학 사업 확대 등에 집중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.

SK는 “환율과 유가 등 경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경영정상화를 완료하고 중장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”고 밝혔다.

SK 관계자는 “2006년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매출 70조원을 돌파했으나 2007년에는 유가와 환율 등 불확실성 변수를 감안해 매출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았다”면서 “에너지 분야는 고도화 및 정제능력 확대로 국내외 매출 확대, 정보통신 분야는 차세대 서비스 개발 및 해외진출 가속화, 건설 분야는 해외건설 수주 확대 등으로 세부전략을 세운 상태”라고 설명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1/11>